

성녀 카타리나

2020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축일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이 자매는, 그 시대에나 오늘날에나 그 인간적, 사회적, 그리스도교적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강하고도 부드러운 인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모범과 성덕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녀 카타리나가 사회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시에나에는 무서운 흑사병이 일어났고, 성녀는 불타는 사랑으로 환자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녀의 강렬한 기도 생활은, 가난한 이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것과 결합되었습니다. 언제나 흑사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자신의 손으로 죽은 이들을 묻어 주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성녀와 똑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과 안전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관대하고 영웅적인 봉사에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임종을 맞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적, 인간적, 심리적 도움을 주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맞선 싸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처음 겪는 이 큰 전염병은, 수백만의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바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뜻밖의 이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책은 손을 씻고 집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로서 당국의 지침들을 따라야 하지만, 이를 넘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고 수도자로서 우리의 평온함, 희망, 연대로 이 전염병이 수반하는 혼란 속에서 복음적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희생된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들에게 부활 아침에 하신 말씀을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인류에게 “희망을 전염”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힌 몸의 상처들을 희망의 등불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L'Osservatore Romano, 2020년 4월 14일)

기쁜 성녀 카타리나 축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의 어려움에 대처했던 성녀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적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